

탐방

재소자 60명 옥바라지

서울구치소불심회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가장 불우한 이웃이 있는 곳. 소외된 이들의 인권포교에 앞장서는 진관스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진하고 있는 곳.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는 이들과 함께 회포를 삭이고자 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다. 불자 교도관들의 모임인 서울구치소불심회(회장 임장수) 회원 120명이 그들.

80년 창립...회원 120명

“불서보시 기다려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닌 ‘따뜻한 자비심’.

지난 80년 7월1일 불심회(초대회장 김기옥)가 출범한 이래 회원들은 24시간 재소자들과 옥살이(?)를 함께 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불심으로 어루만지고 있다.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 경비교도대원들의 정기법회를 지원하는 한편 직원 및 재소자 수계법회, 매달 사찰순례법회, 매주 수요일 경전공부 모임 등을 실시하면서 저마다 옥문(獄門)을 여는 지장보살이 될 것을 서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8일 현 임장

수회장이 3대회장에 취임하면서 ‘전 교도관의 지장보살화’ 원력을 세운 이래 67명이던 회원이 6개월만에 120명으로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신혈을 펼치고 있다.

임장수회장(47)은 “서울구치소는 4천여명의 재소자중 80~90%의 미결수가 3~6개월만에 석방되는 곳”이라면서 “이곳보다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만한 포교환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닌 ‘따뜻한 자비심’.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닌 ‘따뜻한 자비심’.

임장수회장은 “조계종이 중단차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계식을 추진할 경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0343)23-6107

여주=김재경 기자



◇서울구치소불심회 회원·가족 1백여명은 6월29일 여주 신륵사·목아불교박물관, 화성 용주사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사진은 신륵사다층석탑(보물 제225호) 앞에서 참배하는 회원들.

홍콩반환기념 월계법사 등신불 사진전

국회직원불자회 정각선원·와우정사서

홍콩의 역사적인 중국반환을 기념, 홍콩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월계(月溪: 1879~1965)법사 등신불 기록사진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범이)국회사무처 국장은 “홍콩의 육신불살 월계법사 사진 전시회”를 1~5일 정각선원에서 개최했다.

현대의 등신불로 유명한 월계법사는 불전에서 연지(燃指: 손가락 태움)와 홍주(胸注: 가슴을 심지 심음) 등 불퇴전의 서원과 용맹정진을 보였으며, 홍콩을 비롯한 주변불교국에 禪과 교학을 두루 겸비한 당대의 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월계법사는 1965년 87세로 가부좌

한 채 입적, 8개월만에 등신불로 세상에 출현했다. 이때 스님의 육신은 조금도 썩거나 상한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에서는 향내가 진동했고 몸은 금빛으로 빛났으며 자세 또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금강불괴지신(金剛不壞之身)을 이룬 월계법사의 등신상(等身像)은 만불사 월계불당에 좌우보살상과 함께 안치돼 홍콩불자들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왔다.

이번에 전시된 월계법사의 등신불 사진 35점은 생전에 인연있었던 열반종 와우정사(법사 김해근)에서 유품과 함께 다시 전시된다.



◇웃은채로 열반한 월계법사.

독일을 기을 “한국불교와 함께”

베를린보문사 9월 ‘아·태주간’ 대장경등 전시

한국불교를 독일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대규모 문화행사가 아시아 태평양주간(9월15일~10월15일)동안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7년째 베를린 지역의 포교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보문사(주지 병오)는 팔만대장경 판서, 고승선서화, 한국화, 석굴암 사진전을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3일까지 베를린 샤로텐부르크 구청전시관과 훔볼트대학 도서관전시관(9월7일부터 10월 2일)

에서 연다. 한국불교 문화재와 불교사상을 담은 각종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에는 해외사 팔만대장경 경관을 인솔해 원형대로 제작한 판서와 화엄경변상도 대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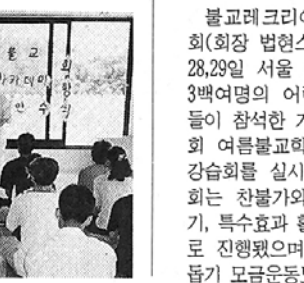
◇병오스님

관련 자료, 불국사와 석굴암의 불교문화재 사진(주제 ‘윤희의 영겁’)이 소개된다. 석주(조계종원로)스님, 서옹스님(백양사방장), 청하스님(통도사부방장), 허 서경보스님, 범서사에가 등산스님, 선화가 성불스님, 보경스님의 선사화를 비롯 권창륜 조용선 이권일 김승남씨등 중진 서예가들의 작품과 강장원 차영규 김규씨 등의 한국화도 독일인들과 만나게 된다.

베를린 전시와는 별도로 9월을 ‘한국의 달’로 정한 함부르크주의 함부르크 예술산업박물관에서는 9월 21일과 27일, 10월11일 병오스님과 정용선 이권일 차용규교수등이 지도하는 서예 선사화 워크숍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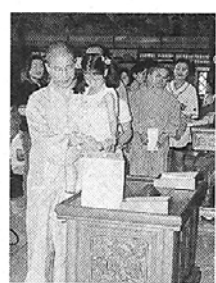
KBUF 불교아카데미 연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6월 27일~29일 한마을선원 금왕지원에서 KBUF 불교아카데미 상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3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출석반·동신반의 상견례, 수행법 강의 및 실수, 기말고사, 수계식 등이 있었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6월 28,29일 서울 구룡사에서 3백여명의 어린이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했다. 강습회는 찬불가와 율동배우기, 특수효과 활용법 등으로 진행됐으며, 북어린이 돕기 모금운동도 펼쳤다.



우리 모임에선

부산의사회 철야정진

부산불교의사회(회장 진성태)진신경정신과의원(장)은 26, 27일 통도사에서 1천배 참선 등으로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법회 후에는 통도사부설 자비원을 방문, 회회는 매주 둘째 화요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주지 심산)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051)514-1845

불교봉사회 병원봉사활동

불교사회봉사회(회장 송지연) 회원 20명은 10, 24일 서울대병원 중앙급급실에서 의료기구 소독 및 봉대접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회회는 매

년 소년소녀 가장 6가구, 가택보호자 47가구에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효정사(주지 중원) 신도들을 자매결연시켜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정회원은 원효정사 신도 80여 명이며 후원자는 2백여명. (02)744-3413

광동학원 교직원연수

조계종립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26, 27일 불암사에서 광동종·고, 광동여교 교직원 140명에 대한 불교연수를 실시한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불교교리, 불교수행 등에 대해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광동종교직원불자회(회장 조용기 교무주임) 회원 90명

은 4일 봉선사에서 교직원법회를 봉행했다.

유니텔 불교홈페이지 개설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이사 김경희)는 6월21일 홈페이지 ‘부처님나라’를 개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PC통신 불교동호회의 홈페이지 개설은 하이텔·나우누리에 이은 세 번째, ‘부처님나라’는 △동호회 소개 △불교공부방 △한국의 불교 △한국의 사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14개, 해외 92개 불교사이트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인터넷 주소=http://forum.unitel.co.kr/bud/

경북련 도봉산 정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도임(위원장 김용숙)은 매주 수요일 도봉산 원봉사(주지 원태스님)에서 법회를 마친후 사찰주변 및 등산로와 계곡을 청소하고 있다. 환경모임은 또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재활용비용을 제작, 사찰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사찰법회와 환경운동을 결부시킨 환경신행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이 모임의 회원은 50명. (02)765-5448

고대학생회 월정사 연화제

고려대불교학생회(회장 양민규)는 7월 5, 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연화

제를 봉행했다. 5일 저녁 8시에 입재식을 가진후 다음날 오전 연화제를 열고 사고로 죽은 범우들을 추모한 회원들은 참선, 108배 정진 등으로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의식교육원 제1기 졸업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6월28일 의식교육원 1기 졸업식을 동산법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졸업생들은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 ‘삼귀의’ ‘5분향례’ ‘반야심경 봉독’ 등을 직접 진행했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서는 이문욱 감사관을 비롯 30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종단협 중국불교협회 초청 성지순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는 중국 불교협회(회장 조박초) 초청으로 6월16일~26일까지 10박11일동안 중국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 대고종 총무원장, 지하 중앙승가대 총장, 상초 진각종 총무원장 등 각 종단대표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북경 광제사, 남경 서화사, 구화산 기원정사, 한주 영은사 등을 참배했다.



국내 첫 계율도서관 ‘비니장’ 헌관

국내 최초의 계율전문도서관인 ‘비니장(毘尼藏)’ 낙성·헌관식이 6월28일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봉행됐다. 38권의 비니장에는 남전대장경 등 8종의 대장경과 사본을 등 5천여권의 계율관련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월원장숙소(12평)와 학인요사채(36평) 낙성식도 함께 봉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부방장) 도원스님(원로의원) 보성스님(송광사주) 성우스님(파계사주지) 등 3백여명이 참석.



조동종 운파스님 증정재추대 법회

조동종 제2대 증정 운파스님 재추대 및 제4대 총무원장 승정스님 취임법회가 6월29일 울림피아 호텔에서 거행됐다. 또 영봉스님과 지명스님도 부총장과 승정원장에 각각 추대됐다. 대신(증정원의회장) 월서(종단협 상임부회장) 영명(법상종 증정) 일공(원용종 증정) 대호(대한법회총 총무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김광태(한국법회총 총무원장) 국성(천태종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



생명나눔실천회 총남지부 창립

생명나눔실천회 총남지부(지부장 조문호·서광유치원 원장) 창립식이 1일 서산문화회관에서 이사장 법장스님, 현각스님(향전사 주지), 김기홍 서산시장, 이복구 도의원, 김현구 前충남도지사 등 지역주민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생명나눔실천회 총남지부는 창립을 기점으로 장기기증신청자 30명, 정회원 50명이 뜻을 함께 했으며, 신부전증환자 조희정씨에게 수술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제 4회 연꽃 어린이 여름 캠프

건강이 넘치는 계절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새싹분자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부처님 말씀도 듣고 인성도 개발할 수 있는 여름캠프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처님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알차고 재미있게 보내는 여름방학을 책임집니다. 특히 “부처님 똘 안에서 스님라 법사님이 진행하고 복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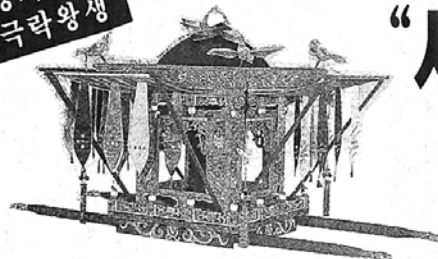
- ◆ 때 : 2541년 7월 23일(수) ~ 25일(금) 2박3일
- ◆ 곳 : 강원도 영월 사자산 관음사
- ◆ 누 가 : 초등학교 1~6학년 (※선착순 300명)
- ◆ 날 돈 : 4만5천원 (2박, 6식, 간식, 기념품·교통비 포함)
- ◆ 캠프활동 내용: 아름다운 이야기 (스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불교이야기) 창의력 살리기 (순수견염색공예, 핑거페인팅) 불성을 찾아서 (법흥사로...)
- ◆ 자연과의 대화(물놀이, 밤하늘 별자리 관찰) 야간 Post훈련 캠프화이어 (장기자랑, 불꽃놀이, 특수호파)
- ◆ 준 비 물 : 운동화 착용, 샌들, 핫이불, 첫날 점심 도시락, 공양미, 헌공금, 모자착용, 세면도구, 필기도구, 수영복, 긴팔옷, 손전등, 여벌의 옷, 우의(우산), 비상약
- ◆ 문의 및 접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 02)738-7860
- ◆ 온 라 인 : 국민은행 832-21-0225-121 김경희 (입금시 연락요망)

진행 :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이벤트 사업팀 “부루나 (BURUNA)”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협찬 : 가위 바위 보 가방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회장 법현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佛敎傳統儀式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가천도 극락왕생



“사찰에 輦은 필수품입니다.”

가격은 내리고 불교전통문화의 예술적 작품으로 장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과 우아한 단청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1개월 이내에 모셔 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주문형으로도 제작하여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영업품목 ■대불■특수불■개금■단청■빙화■탁자■영단■주련■법상■현판■문패■경상■달집

종합불사조성회사
藝暝佛美院
서울 特別市 城北區 東汕洞 4街 91番地 韓國빌딩 3층
예성불미원 TEL: (02)925-5070(대) FAX: (02)925-3991